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043호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산업]
포스코
민노총 노조 출범
"용광로 꺼지는 일 없길"
05

[유통]
정용진표
'남자들의 놀이터'
쑥쑥 성장
L1

텅 비었는데 이동 불편해 vs 차에게 뺏긴 길 시민 품으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오는 날 '서울 차 없는 날'

매년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1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
비 와도 당일 취소 어려워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김현정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세종대로는 사람과 차로 붐비는 여느 주말과 달리 텅 비어 있었다. 서울시가 이날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32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려 한산해진 도심 한복판을 걸을 수 있어 좋다는 시민이 있는 반면 거리에 차가 못 다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주간에 '서울 차 없는 날'을 지정·운영해왔다.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한 주 앞당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요일인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화문과 서울광장 사이 교통을 통제했다.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모(27) 씨는 "오늘이 차 없는 날인지 몰랐다. 비가 와서 사람도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버스가 늦게 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사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풍물패의 길놀이와 환경마당극 등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축제 10분 전까지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비가 내려 시민 참여도가 저조한데도 행사를 강행한 셈이다.

앞서 시는 비 예보가 있던 지난 4월 22일과 5월 6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념식이 열린 오전에는 비가 한 두 방울 밖에 안 내려 행사를 진행했다"며 "매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 행사와 달리 '차 없는 날'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이다.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 당일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온 이모(30) 씨는 "저 차는 왜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종대로를 지나다니는 거냐"면서 "누구는 지나가게 해주고 누구는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비상차로 다니는 행사용 차량"이라며 "무대 철거 후 공연장의 짐을 옮기기 위해 이용된 차량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밤에 비가 내려 행사를 일찍 마쳤다. 교통 통제는 예정(20시)보다 이른 오후 7시 33분부터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2000여 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이다.

대학생 윤소현(22) 씨는 "비가 내려 평소보다 조용하고, 운치 있어 좋다"며 "계속 이렇게 주말만이라도 차에게 빼앗긴 길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troseoul.co.kr

가을밤 수놓는 불꽃축제 올해엔 낮에도 불꽃 '팡팡'

한화

여의도 한강공원서 내달 6일 개최
한국·스페인·캐나다 3개국 참여

매년 가을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한화의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올해는 오는 10월 6일 개최한다.

한화는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다음 달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올해는 불꽃축제를 통해 '모두의 마음속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 불꽃축제는 한국·스페인·캐나다 등 3개국의 불꽃연출팀이 참여한다. 불꽃쇼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 8시 40분까지 총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다.

우선 스페인 '파이로테크니아 이구알'은 '올림픽 드림'이란 주제로 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서울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예술과 문화를 불꽃으로 표현한다.

캐나다 연출팀인 로얄파이로테크니에는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비롯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당시 유행했던 음악을 배경으로 불꽃쇼를 선보인다.

불꽃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화가 맡는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달에 소원을 비는 행위에 모티브를 얻어 '꿈꾸는 달'이란 주제로 다양한 불꽃을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낮부터 불꽃쇼를 기다리는 관객을 위해 원효~마포대교 사이에서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2분간 3차례 낮에도 보이는 주간 불꽃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화측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서울로7017 잇는 보행길 만든다"

도시재생지역 잇는 보행길 조성
중림·회현·후암 등으로 이어져

서울로7017에서 주변 도시재생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보행길 7개가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파급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7017에서 서계·중림·회현·후암·서소문동으로 이어지는 보행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로7017 설계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가 제안한 기본구상안 중 타당성 검증을 통해 7개 연결길 7.6km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각 연결 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물 간 연결, 골목길 녹화, 거리카페 조성, 보행공간 확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보행길 7개 길은 ▲중림1길 ▲중림2길 ▲서계1길 ▲서계2길 ▲후암1길 ▲후암2길 ▲회현1, 2길이다.

시는 7개 길을 7명의 공공건축가가 전담하는 '골목건축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골목길 조성 이후 지역주민과 공공, 전문가 간 소통과 의견 조율을 돕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골목건축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로 2단계 연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골목건축가 제도가 균형 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공간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21일 정상화

5호선 환승 통로 조기 재개통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폐쇄 안내문.

서울시는 오는 21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폐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통로를 조기 재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2·4호선 간 환승은 21일 첫차부터 정상화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기를 단축, 예정일보다 40일 앞당겨 환승 통로를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승강,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에서 전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 기존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와 비교해 인력을 1.5배 늘려 투입했다.

조기 완공했지만, 안전성 검증은 더 강화했다. 통상 3일의 시험 운전 기간을 11일로 3배 이상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직원 50여 명이 미리 탑승해 장애 발생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특별 점검 과정을 거쳤다. 예비준공검사는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경력자를 중심으로 배치해 설치 상태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환승 통로 폐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기를 단축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태원서 가방·의류 등 가짜 명품 판매 적발

위조제품을 판매해온 비밀매장.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위조 제품을 판매한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한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단은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오다 재입건됐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에서 삐끼로 활동하는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